

해양권역의 재인식과 ‘태평양지역연구’로의 전환

주강현*

<차례>

1. 머리말
2. 한국인의 태평양 바라보기
3. 제국의 태평양 만들기
4. 태평양 문화권역의 작위성과 규정성
5. 맺음말: 태평양 인문학의 구상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제주도를 동아시아의 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환태평양의 일원으로 바라보아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학계에서는 대부분 ‘아시아태평양’을 논하면서 ‘아시아’ 대륙과 미국만 논의할 뿐, 정작 ‘태평양’은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해양중심적 사고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태평양은 제국주의의 역사적 발명품이며, 태평양의 문화권 구분도 서구의 발명품이다. 태평양지역(Pacific Region)과 태평양사람들(Pacific Islanders)이란 개념조차 2차대전 이후의 산물이다. 우리가 통념상으로 알고 있는 문화권 구분도 그네들이 태평양에 관해 얻고자 했던 국외자적 창조물이었을 뿐이다. 우리가 통념상으로 알고 있는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같은 명칭도 유럽인들의 발명품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후발주자로서 태평양으로 진출하자 남양군도라는 명칭도 탄생하였으며, 한국사와 태평양이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제주도 및 한반도는 동북아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북서태평양 권역의 일원이

* 해양문화연구원장

다. 해양사적으로는 ‘북서태평양’이라는 자기 권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동북아라는 표현과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북서태평양의 해양적 시각에서 볼 때, 과거의 남양군도를 포괄하는 태평양 섬들과의 연맥관계가 선명히 다가올 것이다. 태평양의 지구(地球) 아닌 해구(海球)로서의 재인식은 제주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육지에 딸린 섬’이 아닌 ‘태평양으로 한 걸음 나아간 섬’으로 재인식 시킬 것이다.

태평양의 섬들에 관한 본격적 이해와 연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학계에 필요한 것은 태평양을 하나의 분명한 지역, 즉 지구상에 가장 넓은 해역(海域)으로서의 지역연구를 수행하는 일이다. 그동안 태평양 연구의 정치경제학 일변도에서 벗어나 ‘태평양 인문학’으로 나아가는 시각전환도 요구된다.

주제어 : 태평양, 북서태평양, 동북아시아, 제주도, 태평양인문학

1. 머리말

한국사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즉 ‘아·태’를 ‘밥 먹듯이’ 이야기한다. 그런데 ‘아태’를 말하면서도 그 말의 함의 속에는 ‘아시아와 미국’, 혹은 ‘한국(절반의 남한)과 미국’과의 관계만 고려한다. 날짜변경선을 관통하는 지루한 태평양 날기만을 생각하였지 사실 따지고 보면 태평양보다는 비행기의 꺼진 불빛 속에서 ‘전원취침’이었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우리들의 ‘아·태’에서 정작 태평양은 빠져 있고 미국만 존재할 뿐이다.¹⁾ 이같은 현상은 태평양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라들의 존재감 자체를 무시한 결과 때문에 빚어진다. 태평양에 속한 국가군만 나열해보아도 그 광대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태평양에는 다음과 같은 나라들

1) 본 연구에서 별도의 각주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은 주장현, 『적도의 침묵』, 김영사, 2007을 참조.

이 존재한다.

동아시아 태평양권역: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필리핀, 파키스탄, 태국, 한국(북한), 싱가포르 등

남태평양권역: 나우루, 마셜제도, 바누아투, 사모아, 솔로몬제도, 오스트레일리아, 팔라우, 피지, 통가, 키리바시, 투발루, 뉴질랜드, 미크로네시아, 피푸이뉴기니 등

북미태평양권역: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남미태평양권역: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칠레, 과테말라, 파나마 등

참치를 잡아 올리고 온갖 물자가 오가고 기름을 실어 나르는, 지구에서 가장 큰 바다인 태평양, 지구의 1/3 면적을 차지하는 태평양은 그야말로 '태평한' 바다가 아니라 국제정치적으로는 국가의 이득과 주권만이 강조되는 '격정의' 바다가기도 하다.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태평양은 모든 대양 가운데 가장 크고 깊은 곳이다. 지구의 1/3을 차지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아시아대륙이 아메리카대륙과 더불어 태평양을 감싸고 있다. 25,000여 섬이 떠 있는 방대한 태평양을 제국은 가만히 두지 않았다. 21세기에도 제국의 태평양 만들기는 끝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한국인이 지나는 태평양에 관한 인식의 범주를 점검해보고, 더 나아가서 왜 제주도를 태평양의 일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역설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주도를 동아시아의 섬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환태평양의 일원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학계에서는 대부분 '아시아태평양'을 논하면서 '아시아' 대륙과 미국만 논의할 뿐, 정작 '태평양'은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해양중심적 사고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태평양은 제국주의의 역사적 발명품이며, 태평양의 문화권 구분도 서구의 발명품이다. 태평양지역(Pacific Region)과 태평양사람들(Pacific Islanders)란 개념조차 2차대전 이후의 산물이다. 문화권 구분은 그네들이 태평양에 관해 얻고자 했던 국외자의 창조물이었을 뿐이다. 우리가 통념상으로 알고 있는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같은 명칭도 유럽인들의 발명품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후발주자로서 태평양으로 진출하자 남양군도라는 명칭도 탄생하였으며, 한국사와 태평양이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제주도 및 한반도는 동북아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북서태평양 권역의 일원이다. 해양사적으로는 ‘북서태평양’이라는 자기 권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동북아라는 표현과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북서태평양의 해양적 시각에서 볼 때, 과거의 남양군도를 포괄하는 태평양 섬들과의 연맥관계가 선명히 다가올 것이다. 태평양의 지구(地球) 아닌 해구(海球)로서의 재인식은 제주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육지에 딸린 섬’이 아닌 ‘태평양으로 한 걸음 나아간 섬’으로 재인식 시킬 것이다.

2. 한국인의 태평양 바라보기

본 장에서는 하와이를 하나의 사례로 들어 한국인의 태평양관을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인의 태평양에 관한 기억은 매우 제한적 범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개화기 한국인의 의식 속에서 태평양이라고 하면 오로지 하와이만 있는 것으로 각인되어 왔다. 보편적 한국인은 ‘폴리네시아적’ 정체성을 지니는 하와이 보다는 그저 ‘미국령 하와이’에만 관심

을 가질 뿐이다. 많이 교정되고 치유되긴 하였지만 태평양상에 오로지 하와이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치부되고 편향된 교육은 지난 20세기의 오랜 '생각의 관습' 같은 것이었다. '생각의 관습'은 그 자체 훌륭한 문화전통이기도 하지만, 법고창신(法古創新)할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의 탄생'을 가로막아 매너리즘을 넘어선 어떤 불확실성과 불명확성, 즉 편견의 집착을 야기한다.

한국인들의 하와이 이민은 전혀 새로운 태평양과의 만남이었다. 그 이전의 유민(流民) 성격으로 만주·러시아 등으로 떠난 이민의 역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와이 이민은 1902년 12월 22일, 121명이 제물포항에서 출발한 것을 시발로 1905년 후반, 이민이 금지될 때까지 7,226명의 이민이 계속되었다.²⁾ 그러나 하와이에 관한 한국인들의 보편적 사고는 하와이 원주민의 주체적 역사에 관한 어떠한 배려도 들어설 수 없게 하는, 지극히 미국적인 사고만을 대변한다. 독립왕국으로서의 하와이 역사를 무시하고 오로지 미국령으로서의 하와이만을 고려하는 편견이 숨어 있다. 역사 교과서에 등재된 하와이 이민사, 하와이 독립운동사의 힘이 워낙 강하게 미쳐서 길들여진 생각의 관습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하와이 이민사를 다룬 어떠한 자료도 오로지 미국령 하와이에 대한 고려만이 있을 뿐이다. 미국 이민 100주년 행사가 하와이에서 거행되었을 정도로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한반도로부터 미국으로 이행하는 조건에 관한 것들 뿐이다. 미국령이 아닌, 전적으로 자유롭던 폴리네시아인 하

2) 하와이 이민 이전에도 비공식적으로 한국인의 하와이 방문이 있었다. 1899년경 인삼장사 최동순(崔東順), 장승봉(張承奉), 강군철(姜君哲), 이재실(李在實), 박성근(朴聖根) 등의 이름이 미국 이민국 자료에 보이고 있으나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대한매일신보』, 1907. 4. 11, 논설 '공립협회의 상보'; 김원용, 『재미한인오십년사』, Ready Calif., USA, 1958, p.6).

와이 왕국의 전복과 식민정권의 등장, 미국령으로의 편입 등에 관한 어떠한 서술도 없다. 하와이는 분명히 전복(顛覆)되었으며, 한국인 이민자들이 당도하기 불과 5년여 전에 폴리네시아인들의 정체성이 와해되는 엄청난 사건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식민의 아픔을 겪은 우리의 시선 속에 하와이 원주민들이 당한 고단한 역사에 관한 한 줄의 기록이나 배려도 없음을 주목하는 것이다. 한국인의 태평양에 관한 인식은 아직은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나 지금이나 타자 중심이 아닌 원주민의 역사가 별도로 존재한다. 따라서 하와이를 오직 한국인의 이해관계에서만 바라보는 자민족주의적 역사서술은 객관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정직하지도 않다. 모름지기 ‘관계의 역사’여야만 한다. ‘관계’ 속에서 서술되지 않은 어떤 하와이 역사도 ‘좋은 역사’일 수 없다. 미국이 행한 하와이 무단합병과 기독교 문명개화의 사회진화론적 속성에 체포되어 있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지 않는 한, 원주민 주체의 하와이 역사는 결코 이해될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하와이의 주체적 역사란 태평양을 무대로 펼쳐지고 광활한 해양세계로 열린 해양중심의 역사관이 아니고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다.

대양으로 나아가는, 즉 자그마한 이민선의 객실 안에는 하와이군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던 세계자본운동이 요동치고 있었다. 자그마한 객실에 누운 이민객의 머릿속에 그로 인한 운동의 파장이 보일 수는 없다. 그러나 상하이(上海)에서 출발하여 고베(神戸)로 연결되고, 다시 미국으로 이어지는 미국 증기선의 강력한 터빈 소음 속에는 자본운동이 야기한 노동력 송출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리고 있었다. 먼바다 선실에서 이민객 각각의 개인이 세계체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할 수 없는 조건에서 자본운동은 이처럼 각각의 개인적 삶에 침투하여 노동력의 세계적 이동이라는 일반 이론을 관철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하와이 이민

사는 독립운동사로만 서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 1차적 의의는 세계자본운동이 야기한 조선인의 첫 번째 노동력 송출이라는 측면에 강조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

중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한국인 순으로 하와이에 입국한 것도 아니다. 피지 같은 폴리네시아인 이미 속속 들어오고 있었으며, 필리핀과 라오스인도 자리잡고 있었다. 한국인의 이민은 하와이라는 전근대사회에 퍼부어진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완성과정에서 촉발된 노동력의 이동이었을 뿐이며, 지나친 미화는 사태의 진실을 이해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당시 하와이 원주민들은 서구인들이 가져온 온갖 질병으로 인한 인구 급감으로 노동력 공백 상태였으며, 급격히 확대되어 나가는 플랜테이션은 다수의 외부노동력 이입을 촉발했다. 함경도나 평안도를 거쳐 북간도로 가던 노동력 이동이 단순 농업이민적 속성이었다면, 하와이 이민은 세계자본주의 노동시장에 한국의 저임금 노동력이 임노동 노동자로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하와이를 예로 적시하였음은, 보편적 한국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렇게 믿고 싶은 하와이를 실례로 삼아서 한국인들의 태평양에 관한 무지와 무시를 비판하고자 하는 뜻이다. 한국인들은 지금도 '아태'를 부르짖고 있고, '아태' 명칭을 붙인 무수한 사회기관들이 존재하지만, 정작 아태의 본원적 연구는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다. 괌과 사이판, 팔라우, 뉴칼레도니아, 피지를 방문하는 한국인은 술하게 많지만, 정작 그곳에 사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아주 취약하다. 태평양 원주민의 문화를 문화다양성³⁾이라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교육이 거의 전무했고 지금도 전무하기 때문이다.

3) 주장현, 『언어생태전략과 민속지식의 문화다양성』, 『역사민속학』 제32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10. 3.

3. 제국의 태평양 만들기

15세기에 유럽의 역사적 공간이 확장되었다. 그에 따라 지도도 확장되어 갔다. 지극히 유럽 중심적인 지리의 확대 과정이었다. 태평양 역시 일반적으로 서구의 ‘발명품’으로 간주된다. 유럽인들이 이 광대한 대양에 첫발을 들여 놓았을 때, 그들의 발견을 기록하고 생각하여 분석하기 위해 관념적인 틀이 요구되었다. 규정짓고 명칭을 붙이는 일부터 잘못되어갔다. 주지하다시피 스페인의 탐험가 발보아(Vasco Nunez de Balboa)는 태평양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다. 발보아는 스페인 군인 190명과 수백 명의 원주민을 이끌고 다리엔지협 꼭대기에 당도하여 태평양을 목격한다. 그는 원주민들의 말에 따라 태평양을 ‘위대한 남쪽바다(the great South Sea)’라 명명했다. 실제로 배를 탄 것은 아니었으며 그 앞에 펼쳐진 태평양을 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1513년 이래 무려 200여 년 동안 서구인들에게 남쪽바다는 태평양을 뜻하는 것이었다.

마젤란은 그 이름이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마젤란은 태평양을 처음으로 횡단한 서구인으로 처음으로 그 섬들을 목격했다. 그의 횡단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루어졌으며 1521년에 처음으로 태평양의 끝을 발견한다. 끝은 태평양에서 마리아나제도의 남쪽에 자리잡은 섬이다. 그러나 그는 태평양을 잘못 이해했다. 태풍과 지진, 조류, 화산분출, 그 밖에 태평양상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게다가 마젤란은 당시에 섬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격렬히 벌어지던 전쟁도 이해하지 못했다. 마젤란 해협을 지나면서 태평양으로 진입한 마젤란 함대는 운 좋게 홈볼트 해류를 타고 지금의 칠레와 페루를 지나 빠른 속도로 북상할 수 있었다. 때문에 마젤란은 이 지역을 평화로운 곳으로 간주했으며, 이름도 ‘the Pacific Ocean’이라 명명하게 된다.

마젤란에게 행운이 따랐던 것이다. 그러나 '태평하다'고 하여 작명된 태평양이란 고유명사는 15세기 이래의 대항해, 특히 마젤란이 태평양을 '발견'함으로서 태어난 '사생아' 같은 명칭일 뿐이다. 그가 오호츠크해 정도의 험한 바다를 통과했다면 '폭풍의 바다'로 명명했을 것이다. 지도 명칭은 모두 이런 식으로 서양인들의 느낌과 취향을 보장한다.

섬들을 지도화하면서 유럽인들은 각각의 장소마다 이름을 부여하고자 노력했다. 바다지명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속성을 갖는다. 꽃·만·하구·해산·암초·섬·해협·보초·초호 등 복잡다단한 장소마다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고 목표로 삼아야 했기 때문이다.⁴⁾ 유럽인들은 이 복잡다단한 명칭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조건 자신의 고향 지명과 선장의 이름을 가져다 붙였다. 탐험가들이나 조국에서의 후원자들, 가령 마셜이나 길버트, 샌드위치 섬 같은 이름을 붙였으며, 유럽의 장소 이름인 뉴 칼레도니아나 뉴 아일랜드, 뉴 브린턴 등으로 명명했다. 태평양 섬들의 지도화는 섬 세계에 대한 유럽인들의 성향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펠리세 2세 국왕의 이름을 딴 필리핀, 여왕의 이름인 마리아나제도, 캐롤라인 공주의 캐롤라인제도, 쿡 선장이 지나간 쿡 아일랜드,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를 위한 비스마르크제도, 베링이 지나간 베링해 식이다. 지도와 지명의 제국주의는 이 같은 임의 작명과 분할을 통해 완성되었다. 어디에도 원주민들이 쓰던 고유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머나먼 섬조차 유럽의 탐험가·선교사·선장·무역상인·해군장교·지도제작자 등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섬들은 그네들의 땅과 배 이름 등을 본따 작명되었다. 한국식으로 빗대자면, 홍길동섬·김

4) Horace Beck, *"Folklore and the Sea"*, Mystic Seaport Museum, Connecticut, 1985.

해김씨성·제주고씨네섬·백두산섬 같은 식이었으니 원주민의 토착적 문화다양성은 무시되고 임의로 명명되었다.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던 섬들’이었으나 유럽인에 의해 ‘새삼스럽게 발명’된 것이다. 제국에 의한 지명의 발명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콜롬부스가 ‘발견’했다는 인디언(Indian) 자체가 ‘발명품’이었다. 인도가 아닌데도 아메리카 원주민은 오늘날도 인디언으로 호명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지명들, 가령 라틴아메리카라는 명칭도 정치적인 선택이다. 라틴아메리카라는 이름은 1860년대 나폴레옹 3세 시절에 탄생하였다. 당시 정치경제학자 미셸 슈발리에에는 프랑스의 팽창외교를 합리화하고자 라틴어갈래의 언어를 사용하고 카톨릭을 믿는 나라들 사이에 연대를 강화할 것을 제안할 목적으로 범라틴(Pan-Latin) 외교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프랑스가 주도하는 범라틴 연합으로 러시아와 동구가 중심이 된 범슬라브세력, 영국이 주도하는 앵글로색슨 민족의 압박을 물리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틀 속에서 미주 대륙을 앵글로아메리카와 라틴아메리카로 나누었다. 이 말은 ‘이베로아메리카’(Iberoamerica), 히스패닉아메리카’(Hispanic America)란 용어를 밀어내고 외교가에서 시민권을 획득했고, 나아가 학계와 지도제작자들에게 수용되었다.⁵⁾ 문화와 인구이동의 측면에서 보자면 아프리카의 기여도 만만치 않으므로 아프로-라틴-아메리카(Afro-Latin America)라 부르는 게 정확할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식으로 태평양지도를 본질적으로 바꾸어놓은 것은 미국이다. 신탁통치기간의 지명에 관하여 연구한 바 있는 브리안(E.H.Bryan)은 폰페이섬 하나만 해도 무려 27 종류의 이명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모든 마이크로네시아의 섬들은 하나 이상의 다양한 명칭을

5) 이성형,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상』, 까치, 1999.

지니고 있다. 미국은 신탁통치기간을 통하여 아예 본격적으로 지명개편 작업을 벌였으며, 이러한 지명개편은 북마리아나제도와 팔라우,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마셜군도 등에 집중되었다⁶⁾. 잠시 한반도의 경우를 떠올려 본다. 인도양과 태평양을 가로질러 들어온 서구인들은 우리 바다를 어떻게 작명했을까? 멋대로 지명을 정하는 서구인들의 제멋대로 행위는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멜표류기』 이후에 제주도는 켈파트(Quelpart)로 서양에 알려진다. 1845년에 제주도우도에 당도해 측량조사를 수행한 영국 벨처(Belcher)는 제주도 한라산을 오클랜드산(Mt. Auckland)으로 명명했다. 프랑스 함대 사령관 로즈(P.G.Roze)는 월미도를 자신의 이름을 따서 로즈섬(Roze Island)으로 명명했다. '해적' 오페르트는 교동도를 'Beacon Hill Inse'라 명명했다. 사마랑호(Samarang)호는 거문도를 해밀턴항(Port Hamilton)으로 지칭했으며, 우도를 뷰포드섬(Beaufort Island)이라 명명했다. 1849년, 프랑스의 포경선에 의해 독도는 리앙쿠르로, 1854년에 러시아의 팔라다호에 의해 메나리암과 올비부차암(Menalai and Olivutsa Rocks)으로, 1855년에는 영국의 호넷트호에 의해 호넷트(Hornet) 섬으로 각기 제멋대로 기록되고 통용되었다.⁷⁾

위와 같은 제국의 태평양 만들기에서 결정적 사건은 역시 20세기에 벌어진 이른바 태평양전쟁이라는 것이다. 광의의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태평양전쟁은 권력과 부에 비해 세계적인 위상이 낮았던 일본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신흥제국이 그 실상에 어울리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⁸⁾ 서부유럽, 특히 영국·프랑스·네덜란드는

6) E.H.Bryan, "In the Guide to Place in the Trust of the Pacific Islands", Pacific Science Center, Bishop Museum, Honolulu, 1971.

7) 한상복, 『해양학에서 본 한국학』, 해조사, 1988.

국제적인 힘의 재조정 과정에서 밀려나고 있었으며, 새로운 맹주인 일본과 미국이 전면 대립하는 전선으로 확대되었다. 따지고 보면 20세기 초부터 마지못해 교육적·정치적·사회적 개혁정책을 도입해 자유주의적 운석을 하고 있었지만 ‘帝國’이 취약하다는 사실은 이미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드러났다. 1902년 영국과 일본이 체결한 시의적절한 관계(영일동맹) 덕분에 1차대전 동안 서양제국 세력이 극동 및 동남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보존할 수 있었다. 이 영일동맹은 1921년에 만기를 맞이하여 끝났고, 영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안정된 안보관계를 수립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유럽이 아시아에서 부리던 허세가 실상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⁹⁾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해가 이미 저무는 동안, 신흥제국인 미국이 서진을 거듭하여 태평양으로 본격 진출하였고, 일본은 북쪽은 물론 남쪽과 서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두 신흥제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연적으로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징용·징병·정신대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한국인들이 반강제적으로 개입되었으며, 태평양은 비로소 ‘남양군도’라는 이름의 시민권을 획득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남양군도를 뛰어넘는 더 이상의 시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4. 태평양 문화권역의 작위성과 규정성

태평양의 문화권 구분도 서구의 발명품이다. ‘태평양지역’(Pacific

8) 주강현, 『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 웅진지식하우스, 2005.

9) Clive J.Christie, “Southeast Asia in the Twentieth Century: A Reader”(『20세기 동남아시아 역사』, 노영순 역, 심산, 2004, p.145).

Region)과 '태평양사람들'(Pacific Islanders)란 개념조차 2차대전 이후의 산물이다. 문화권 구분은 그네들이 태평양에 관해 얻고자 했던 국외자의 창조물이었을 뿐이다. 작은 섬들이 모였다 하여 마이크로네시아, 검은 이들이 산다하여 멜라네시아, 섬이 많다 하여 폴리네시아처럼, 그렇게 그렇게 정해졌다. 이들 삼분법은 여전히 변덕스럽기도 하고 애매 모호하다.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그리고 멜라네시아라는 3개의 문화영역은 유럽인들에게 편리한 관점이었을 뿐이었으나 일단 이름이 붙여지자 태평양지역의 거대한 구조로 기능하면서 실제로 그들 자신의 리얼리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같은 폴리네시아도 프랑스 영역은 프렌치폴리네시아로 구분되며, 사모아도 미국령 사모아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러한 지명의 정치(Politics of naming)는 오늘의 태평양을 규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치이다.¹⁰⁾

서구에 가장 잘 알려진 해역은 폴리네시아일 것이다. 지리적으로 3개 문화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각기 떨어진 섬들 간의 거리에 있어 가장 먼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히 폴리네시아들을 묶을 수 있는 공통분모는 존재한다. 대항해를 통해 분산·전파되었기 때문에 공통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워낙 오래 전에 분산·전파되었고, 정착 지역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기 때문에 하나로 묶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가령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이나 하와이군도, 마이크로네시아에 속하는 카핑카마랑지가 모두 폴리네시아인이다. 지구면적 1/3을 차지하는 대양에 퍼져 있는 상태에서 적어도 2000년 이상을 독립적으로 살아온 이들을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10) K.R.Howe, Robert C.Kiste, Brij V.Lal, editors, *"Tides of History - The Pacific Islands in th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Hawaii Press, Honolulu, 1994, p.406.

바깥에 떨어진 폴리네시아인들은 문화영역을 멋대로 정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태평양에서의 정착은 주로 동남아시아에서의 사람들의 동진으로 일어났으며, 끝내는 이스터 섬까지 이른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폴리네시아의 위대한 대항해는 기원전 1500여 년 전에 시작된 동남아시아의 라피타(Lapita) 문화를 향유했던 이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인도네시아를 출발해 뉴기니아의 동쪽 해안을 따라 최초의 여행을 나선 것으로 고고학자들은 유추한다.¹¹⁾ 그들의 이동 권역은 다이나믹하며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 세기에 걸친 동진 끝에 그들은 마이크로네시아와 멜라네시아 변방의 섬들로 돌아오기도 한다. 폰페이 남쪽의 카핑가마랑지 섬과 누쿠오로 섬도 모두 마이크로네시아 바깥에 놓여진 폴리네시아인들이다.

마이크로네시아란 이름도 1831년에 프랑스 지리학자 도미니(Domeny de Rienzi)에 의해 명명되었다. 이는 그리스어의 ‘조그마한 섬들’이란 뜻의 조합이며, 텍스트상의 표현에서 물리적 지배로 이행하는 중요한 성질상의 단계로 기록되었다. 마이크로네시아는 아마도 2천 개가 넘는 산호섬 덕분에 작명되었다. 동쪽 캐롤라인제도의 코스레이와 폰페이의 높은 화산섬과 서쪽의 벨로우와 압의 높은 섬들을 뜻한다. 이 같은 지명이 탄생했음은 19세기에 제국의 세계가 자신들의 전리품을 좀 더 분명히 구획짓고 품목화하려는 욕구에 따라 더욱 강렬해졌다. 명칭을 채택하고 이를 공용어로 기술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식민권력의 쟁투가 완료되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은 섬들이란 뜻의 멜라네시아는 원주민들의 검은 피부에서 비롯되었다. 피지는 보통 멜라네시아에 속하나 실제로는 과도기적인 장소이다.

11) Sumet Jumsai, "NAGA: Cultural Origins in Siam and the West Pacific", Chalermnit Press and DD Books, Bangkok, 1997.

대부분의 피지사람들은 멜라네시안 계열이나 문화적으로는 폴리네시아인과 공유된다. 사실 피지도 문화적 영역간에 영역구분을 멋대로 행한 좋은 사례이다. 길버트제도는 현재 키리바티의 부분이며, 언제나 마이크로네시아로 구분된다. 그러나 그들 문화는 남쪽으로 폴리네시아 이웃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쪽 이웃들의 언어와 유사하며 폴리네시아 계열로 인정된다. 폰페이와 코스레이의 정교한 지배력과 수직적 사회구조는 폴리네시아의 영향을 연상케 한다. 서부 마이크로네시아인 팔라우와 앞에서는 멜라네시아의 영향이 엿보이며, 외딴 섬들의 일부는 서부 뉴기니아와 신체적으로 물질문화적으로 유사함을 보인다. 그래서 그들을 파라미크로네시아(para-Micronesians)이라 부르기도 한다.

대개 이러한 방식으로 단순히 구분했을 뿐이다. 어드미랄티(Admiralty)제도에서 가까운 카니에르(Kanier) 산호섬의 카누벳머리(prow)를 보자.¹²⁾ 이 카누벳머리는 태평양의 문화권 구분이 매우 부정확함을 반영한다. 카니에르는 분명히 멜라네시아권이지만 마이크로네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흔적도 보인다. 19~20세기의 거대한 카니에르 대항해용 카누는 모두 크고 휘어진 장식을 지니는데 이런 방식은 라피타(Lapita) 예술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지역적 경계를 뛰어넘어 멜라네시아·폴리네시아·마이크로네시아 등 모든 문화권 안에 이들의 뿌리인 라피타 문명의 공통적 맥락이 내적으로 흐르고 있다.

문화영역이란 애초부터 추상적인 것이며 기껏해야 임의로 작성된 것임을 종종 사람들은 망각하곤 한다. 1945년에 쓰여진 글에서 인류학자 키싱(Felix M. Keesing)은 “여기에 붙여진 이름들은 명백히 과학적인 명칭들이다. 그러한 이름들은 지금껏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별 상관

12) Anne D'Alleva, "Arts of the Pacific Islands", Perspectives, New York, 1998, p.17.

이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섬 사람들은 아직도 지역에 국한된 수평선 내에서 살면서 그네들의 지역적이며 부족적이거나 마을이름을 쓰고 있을 뿐이다”고 했다. 언어학적으로, 인종학적으로, 나아가 생물학적·지질학적 분석의 근거 틀로 이용 가능한 측면이 충분하지만 정작 각각의 섬에서 고립적으로 살아온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개념들이었다. 그러나 키싱은 중요한 지적을 한다.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현안을 적시한 것이다.

“지난 40여 년간 학자들이 정한 그러한 범주들이 실제로 섬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으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폴리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그리고 멜라네시아 사이의 차이는 지금으로서는 문화와 국가적 정체성, 정치적 아젠다, 그리고 지역문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단지 국외자들을 위한 카테고리의 범주를 넘어섰다. 명칭이 거꾸로 존재를 규정짓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서구의 작위적인 발명품은 원주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한다. 백인들이 개입하여 만들어놓은 작의적·도식적 영역들은 같은 종족끼리 대량학살극을 벌이는 데까지 발전하게 된다. 20세기의 마지막을 강렬하게 장식하였던 동티모르가 그것이다. 17세기부터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은 티모르를 차지하기 위해 싸웠다. 결국 두 식민 지배세력은 작은 티모르를 동서로 분할하여 서부는 네덜란드가 차지하여 네덜란드 동인도제도(오늘날의 인도네시아), 동부는 포르투갈이 차지하게 된다. 2차대전 이후에 네덜란드 동인도제도가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으로 독립하자 서티모르는 이 신생국가의 일부가 된다. 하지만 동티모르는 포르투갈이 자신의 식민제국을 해체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포르투갈의 지배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동티모르는 종교, 언어, 수백년의 식민 역사의 경험 등이

인도네시아와는 전혀 다르다. 포르투갈이 동티모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포르투갈의 철수가 결정되자 인도네시아 수하르토정권은 자국의 영토와 천연자원을 확대할 기회로 보고 1975년에 침략을 감행한다.

뒷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침략하기 전날 밤, 제럴드 포드 미국대통령과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 자카르타에서 수하르토를 만나고 있었고, 침략을 미국이 허락한다. 인도네시아 침략 및 이후의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약 20만명의 동티모르인들이 대량 학살되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나갔다. 동티모르 전체 인구의 1/4이 넘는 숫자이며 전체 숫자로 볼 때 근대사 최대 유혈사태의 하나에 속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도네시아군대는 고문과 강간, 대규모 강제이주를 수행한다.¹³⁾

돌이켜보면 지난 1992년 아메리카 발견 500주기를 기념하여 콜럼버스의 생애와 업적이 여러 방면에서 재조명되었다. 그러나 원주민들에게 유럽인의 도착은 불행 그 자체였다. 금을 찾는 과정에서 자행된 원주민에 대한 혹독한 착취, 노예화, 원주민지역에 대한 성급한 취득 선포는 침략자들에게 죄를 더하게 했고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다. 그 결과는 오늘에까지 미치고 있다. 노엄 촘스키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91년 10월 11일, 미지의 땅에 첫발을 내딛은 탐험가들의 이름을 따서 때때로 세계 역사의 ‘콜럼부스 시대’ 또는 ‘바스코 다가마시대’로 불렸던 5백여년에 걸친 구세계질서가 종언을 고했다. 이 기간은 전세계

13) Noam Chomsky, "500 Year 501" (오애리 역,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이후, 2000, pp.435-437)

를 정복했던 유럽의 침략자들과 독일 나치의 이데올로기 및 통치방식을 비교하는 기념책자 제목을 빌어 “5백년제국; 500-Year Reich”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구세계질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복자와 피정복자간의 충돌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충돌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명칭도 여러 가지이다.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남북갈등, 중심부 대(對) 주변부, 서방선진 7개국(G7)과 그 위성국 대 나머지 국가들, 중심국 대 변두리국가 등. 하지만 보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바로 ‘유럽인의 세계정복’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5. 맺음말: 태평양 인문학의 구상

그렇다면, 논의의 축을 제주도로 옮겨와 본다. 제주도는 한반도에 부속된 변방의 섬인가? 그도 아니면 동북아시아 쿠로시오 해류권의 해양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제주도는 육지 중심 사고에서 보면 변방의 섬이 맞는 말이고, 동북아 중심 사고로 바라보는 것 역시 틀린 것은 아니다. 당연히 한반도의 일원이고 대만·오끼나와 등과 더불어 동북아 유수의 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주도를 태평양의 일원으로 바라보려는 시각은 대단히 일천했으며, 구두로만 논의되어 온 실정이다. 제주도는 위의 두 측면으로 규정지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환태평양’이라는 큰 차원에서 규정짓는 것이 훨씬 합당할 수 있다.

미크로네시아에 부속된 여러 주권 국가들, 팔라우·얍(Yap)·축·폰페이(Pohnpei)·코스래이(Kosrae)로 이루어진 미크로네시아연방, 북마리아나(Northern Mariana)군도, 괌(Guam), 마셜(Marshall)군도, 나

14) Noam Chomsky ; 2000, p.20.

우루(Nauru), 그리고 상당히 멀리 떨어진 웨닉스(Phoenix), 라인(Line), 길버트(Gilbert)군도를 포함하는 키리바티(Kiribati) 등, 이들 섬들은 제주도와 연관이 있을까? 당연히 관계있다. 우리가 그토록 말로만 되뇌이던 남양군도가 그곳이기 때문이다. 이들 남양군도 위에 괄과 사이판이 있고, 그 위에 오끼나와, 좀 더 올라오면 제주도가 등장한다.

본 연구의 서두에 예로 든 하와이는 또한 제주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와이왕국 멸망 이후, 호놀룰루의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같던 목가적 풍경은 와이키키 개발 등으로 본격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한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할리우드와 최고의 도박도시 라스베가스가 건설되었다면, 서부에서 태평양으로 행진한 끝에 하와이에 와이키키가 건설된 것이다. 군사기지로 변하면서 해군이 몰려들고, 기지촌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찍어낸 다양한 하와이 그림엽서에는 하와이가 파라다이스로 알려지게 되는 초기 모습이 생생히 반영되어 있다.¹⁵⁾ 20세기 초반부터 와이키키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환락가로 둔갑한 것이다. 할리우드 스타라면 누구나 와이키키에서 한번쯤 염문을 퍼뜨리거나 파도타기 앞에서 수영복 사진을 찍게 되었다. 와이키키의 변형이 괄이며, 괄의 또 다른 변형이 제주도 중문단지라고 한다면 정확할지 모른다. 원주민과 분리된, 원주민의 삶과 전혀 무관한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100여년의 역사를 이끌어온 셈이다. 이에 관한 원주민들의 근본적 문제제기, 즉 하와이 자치권독립의 요구를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¹⁶⁾

원주민 속으로!(*Go Native!*) 폴리네시아 원주민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는 폴리네시아 문화센터(Polynesian Cultural Center : PCC)

15) Mark Blackburn, "Women of Polynesia", Shiffer, Honolulu, 2005.

16) Haunani-Kay Trask, "From a Native Daughter - Colonialism and Sovereignty in Hawaii", Univ. Hawaii Press, Honolulu, 1999.

의 선전판플랫폼이다. PCC센터는 보통 몰몬교로 알려진 말일성도교(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LSD)의 사유재산이며, PCC가 자리잡은 라이니는 교인들 중심의 회사촌(會社村)으로서 몰몬계 브리검 영대학의 재정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건립되었다. 이 센터에는 피지, 하와이, 사모아, 타히티, 통가, 뉴질랜드, 그리고 마르케사스 섬이 한자리에 모여있다. 커누, 홀라춤, 나무 기어오르기로부터 전통옷입기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강조점은 물질문화(가옥, 커누, 공예품)와 공연예술(노래와 춤)에 주어진다. 그 대신에 폴리네시아인들의 무형적인 이데올로기나 사회조직, 세계관은 결여되어있다. 폴리네시아생활의 비물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단지 약간의 일반적인 암시를 던져줄 뿐이니, PCC같은 모형창출을 통한 가짜문화(fake culture)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실체가 아니라 모형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줄 문화요소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가짜문화, 즉 오늘날 폴리네시아의 섬들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을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PCC의 대다수 전시물에 스며있는 중심적 명제는 그 전시물들이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에서 오늘날 전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들 모형은 종족관광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그럼으로써 여러 폴리네시아 사회의 토착민들조차 거의 보지 못했던 것을 오후 한나절에 걸쳐 관광객들에게 보여준다. 모형문화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방문객들은 폴리네시아 전역을 살살이 여행하지 않고서도 선별적으로 제시된 폴리네시아 문화들을 대략적으로 꿰뚫어볼 수 있다. PCC를 적극 옹호하는 입장에서 서있는 입장에서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휴가를 보내고 있으므로 관례와 일상성에서 벗어난 색다른

것을 찾으며, '별난 것'을 경험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폴리네시아 문화의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측면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경험의 깊이를 결여하고 있다. 관광객들은 사모아의 촌락에서 그저 잠깐동안 간단한 출판에 참여할 뿐이며, 통가지역에서는 어깨너머로 타파(Tapa: 나무껍질천)를 만드는 모습을 쳐다볼 뿐이다. 그리고는 폴리네시아풍의 배경을 넣어 폴리네시아인과 같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도록 권유받는다. 하루 일정의 방문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친족적 요소들에서 아주 복잡한 변이를 갖는 폴리네시아 확대가족(同屬, *ramage*)의 본질에 관해 논의해볼만한 시간이 없다. 또 자본의 한 형태로서 육체노동력 징발의 경제적 측면들을 설명할 만한 시간이 없다. 또 폴리네시아 문화의 심오하고 복잡한 여러 측면들을 탐구할만한 시간이 없다.¹⁷⁾

민속촌은 이같은 모형문화의 복사판이다. 이러한 테마파크들은 공통적으로 야외박물관형식의 모형문화(model culture), 무대화된 허위 민속문화(staged phony-folk culture), 관광무대(tourist stage), 전시지역(front region)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¹⁸⁾. 대개 20세기에 촉발된 이런 형식의 테마파크는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고 사라진 시간을 붙들어매어 오늘의 현실로 가져다 주는데 탁월한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정지된 시간은 붙들어매수 있어도 원주민들의 역동적인 삶의 역사, 삶의 변화는 붙들어매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선전문귀는 매양 이런 식으로 상투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새로운 카누쇼, 아이맥스영화, 하와이 고유민속 축제, 저녁의 대 피날레를 피뫼한 여행사를 같이 즐겨보십시오. 하와이의 미와 분위기로 가슴을

17) Max Stanton, 'The Polynesian Cultural Center: A Multi-ethnic Model of Seven Pacific Cultures', *"Host and Guest"*, 1977, pp.193-206.

18) 전경수 편역, 『관광과 문화-관광인류학의 이론과 실제』, 까치, 1977.

적서보십시오!

와이키키호텔(Waikiki Beachcomber Hotel)의 700 관람석을 꽉 채우는 폴리네시아 미술쇼를 보면 사태는 보다 정직해진다. 원주민의 토착적 삶은 이제 미술로 승격되었으며, 쇼 오락프로그램으로서 정직하게 관객을 받아들인다. 타락한 홀라춤꾼을 연상시키는 반나의 여성이 조개껍질 목걸이를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폴리네시아의 ‘가장 오리지널’(Most Original!)이라는 선전팜플렛의 슬로건대로 몸을 흔들 뿐이다.

폴리네시아인들의 무형적인 이데올로기나 사회조직, 세계관은 결여되어 있다. 폴리네시아 생활의 빗물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단지 약간의 일반적인 암시를 던질 뿐이니, PCC 같은 모형 창출을 통한 가짜문화(fake culture)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다. 한국민속촌은 이 같은 모형문화의 복사판이다. 이러한 테마파크들은 공통적으로 야외박물관 형식의 모형문화(model culture), 무대화된 허위 민속문화(staged phony-folk culture), 관광무대(tourist stage), 전시지역(front region)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대개 20세기에 촉발된 이런 형식의 테마파크는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고 사라진 시간을 붙들어 매어 오늘의 현실로 가져다주는데 탁월한 기능을 발휘한다. 그런데 정지된 시간은 붙들어매 수 있어도 원주민들의 역동적인 삶의 역사, 삶의 변화는 붙들어매 수 없는 것이다. 제주도의 민속촌은 어떠한가? 이처럼 태평양은 각기 드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어 전혀 무관할 것 같지만, 너무도 가까운 섬들의 연합체, 섬들의 공동체일 뿐이다.

지중해 중심에서 대서양 중심으로의 이동, 다시 인도양으로의 이동, 마지막으로 태평양으로의 이동이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지중해는 어제의 바다이고, 대서양이 오늘의 바다라면, 태평양은 미래의 바다”라는 명

제조차도 넓은 구호가 되었다. 한·중·일을 포함한 동북아 3국이 태평양에 포진하고 있으며, 아메리카 대륙과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가 태평양의 일원이다. 그런데 그 넓은 바다에는 무수한 섬들이 국가를 이루거나 독립 섬으로 존재하고 있다.

태평양의 섬들에 관한 본격적 이해와 연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학계에 필요한 것은 태평양을 하나의 분명한 지역, 즉 지구상에 가장 드넓은 해역(海域)으로서의 지역연구를 수행하는 일이다. 그동안 태평양 연구의 정치경제학 일변도에서 벗어나 '태평양 인문학'으로 나아가는 시각전환도 요구된다.

제주도 및 한반도는 북서태평양 권역의 일원이다. 해양사적으로는 '북서태평양'이라는 자기 권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동북아라는 표현과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북서태평양의 해양적 시각에서 볼 때, 과거의 남양군도를 포괄하는 태평양 섬들과의 연맥관계가 선명히 다가올 것이다. 구차하게 지구온난화와 해양기후의 절대적 중요성, 쿠로시오 해류권의 중요성 등을 되뇌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태평양의 지구(地球) 아닌 해구(海球)로서의 재인식은 제주도를 이해하는 방식에서도 '육지에 딸린 섬'이 아닌 '태평양으로 한 걸음 나아간 섬'으로 재인식시킬 것이다. 더 나아가 태평양의 섬들에 관한 본격적 이해와 연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굳이 태평양 너머 한반도까지 와 있는 아메리카합중국 의 해양국가로서의 국제정치적 패러다임까지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우리 학계에 필요한 것은 태평양을 하나의 분명한 지역, 즉 지구상에 가장 드넓은 해역(海域)으로서의 지역연구를 수행하는 일이다. 그것도 그동안 태평양 연구의 주도자처럼 비추어진 정치경제학 일변도에서 벗어나 '태평양 인문학'으로 나아가는 시각전환이 요구될 것이다. 가령 지금도 태평양 곳곳에서는 각 지역 단위에 뿌리를 내리

고 심도 깊게 ‘태평양 인문학’을 수행하는 여러 연구들이 진척되고 있는 중이다¹⁹⁾. 본고는 이 같은 의도에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했다.

19)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을 참조할 것.

Hilary Stewart, *"INDIAN FISHING"* (주강현 역, 『인디언의 바다』, 블루&노트, 2010)

Abstract

Renewed Appreciation of the Oceanic Reigon
and Conversion to 'Study on the Pacific Area'

Joo, Kang-Hyun*

This study emphasizes the viewpoint of Jeju Island as part of the Pacific rim and avoidance of restriction to consider it only as an island of East Asia. The Korean academic society discusses the Asia but actually excludes the Pacific. This is a result of insufficiency of ocean centered thinking.

The Pacific is a historical invention of imperialism, and the classification of a cultural area is also an invention of the West. The notions of the Pacific reigon and Pacific people are the product after the World War II. The classification of a cultural area was just a creature of western onlookers who wanted to acquire about the Pacific. Even the names of Polynesia, Micronesia and Melanesia are all inventions of Europeans. As the Japanese imperialism invade to the Pacific, the name of the 'Namyang Gun-do'(南洋群島) was created.

The Jeju Island and the Korean Peninsula are the members of the northwest Pacific area. In the oceanic history, it is required to clarify its own area called 'the northwest Pacific' and this has another meaning different from the expression of the northeast Asia. The renewed appreciation of the Pacific not as a zone but as a trench will lead a renewed appreciation of the Jeju Island not as a 'island

* Chief of Ocean Institute

belonging to a land' but as an 'island which moved ahead one more step to the Pacific' even in the understanding method. Furthermore, the full-scale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about the Pacific is a beginning from now on. What our academic circle requires is performing the area study for the Pacific as a clear area, namely as the widest sea area in the world. The past exclusive devotion to the political economics of the Pacific study should be avoided to have a conversion of a viewpoint to move ahead to 'the Pacific Riberal arts'.

Key Words

Pacific, Northwest Pacific, Northeast Asia, Jeju Island, Pacific Riberal arts

교신 : 주강현 410-38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10-2
(E-mail : asiabada@hanmail.net 전화 : 010-3164-6812)

논문투고일 2010. 06. 30.

심사완료일 2010. 07. 30.

계재확정일 2010. 08. 10.